

2025 국민이 함께하는 저작권 글 공모전(시)

제목

고백하건대

나는 표절 시인이다
그것도 낮익고 만만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골라 훔치고 있다

매일 산행하는 천마산의 숲을 무단 도용하고
그 숲 새집 속 어린 새의 발딛거리는 숨소릴 꺼내 베끼고
종종 출퇴근길 화살표를 빼돌려 별똥별에게 넘겨주고
더불어 지인의 눈물과 웃음을 공으로 가져다 쓰고
하물며 애인이 준 사랑의 노랫말도 내 명의로 등재한다

원작자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
갈수록 낮 짝 두꺼워진 나는 오늘도 현행범의 시인이다